

고규홍의 ‘나무 생각’



나무의 삶에 담긴 진정성

모란·작약이 한창이다. 꼬리를 감추고 떠나는 봄을 배웅하는 여름 꽃이 마냥 화려하다.

옛부터 ‘꽃중의 왕’(花中之王)이라 부르던 모란은 화려함에서 첫손에 꼽히는 정원 식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빛깔과 모양을 가진 새 품종의 모란을 개발해 왔다.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화려한 모란이 있는가 하면 모란답지 않게 질박해 보이는 모란도 있다. 작약도 그렇다. 빛깔과 모양이 해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다른 종류이지만, 구분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꽃송이의 크기와 빛깔이 매우 닳았지만, 모란과 작약을 구분하는 정도는 그나마 가능하다. 작약은 꽃피고 열매 맺은 뒤에 땅 위로 드러났던 줄기가 모두 스러지지만, 모란은 한해살이를 마친 뒤에도 줄기를 그대로 남긴 채 겨울을 난다. 풀과 나무, 즉 초본식물과 목본식물의 차이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은 끊임없이 새 품종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모양과 더 화려한 빛깔의 꽃을 가까

이에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따른 결과다. 구별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알기 어려운 식물이 속속 등장한다. 복잡하다.

그 가운데 장미만큼 복잡한 식물도 없다. 세익스피어는 장미를 놓고 ‘내가 아는 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꽃’이라고 했다. 장미는 보는 이의 혼을 빼앗을 만큼 황홀한 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사람에 의해 선발된 장미의 품종은 무려 2만5천 종류나 되고, 지금도 7천 종류의 장미 품종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 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딘가에서는 새 품종의 장미를 선보이기 위한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고 있으리라.

꽃잎을 겹꽃으로 변화시킨 건 물론이고, 흰색과 분홍색뿐이었던 야생 장미로 부터 주황색·노란색·빨간색의 장미가 나왔다. 심지어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던 파란색 장미꽃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에 생명공학의 힘을 빌려 ‘어플로즈’라는 이름으로 선발한 장미 품종이 그것이다.

새로 나오는 식물의 품종은 제각각 다른 특징을 가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꽃송이가 점점 더 크고 화려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양과 빛깔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안 놓치는 게 생겼다. 야생 상태에서의 장미가 지녔던 본래의 건강, 즉 자생력을 하릴없이 약해졌다.

겉꽃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수술 가운데 몇 개를 꽃잎으로 변화시켰다. 번식의 핵심이 되는 꽃가루를 품은 수술이 줄어들 어드니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다. 향기의 근원 가운데 하나인 꽃가루가 적어져 향기도 줄었다. 야생에서와 달리 병해충이 많이 생기지만 스스로 이겨 내는 힘은 부쩍 떨어졌다. 먹을 걸 줄여 가며 가느다란 몸매를 얻는 대신 건강을 잃어야 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사람의 취향에만 맞추다 보니, 야생의 장미가 가졌던 본능의 상당 부분은 훼손되고 말았다.

조선 후기의 문인 박준원은 ‘꽃을 보다’(看花)라는 오언절구의 절창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양과 빛깔로 꽃을 보지만, 나

는 오로지 생명의 기운으로 꽃을 바라본다(世人看花色/吾獨看花氣)”고 했다.

생명체의 진정성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는 일같이다. 시각만으로 미처 확인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을 보아야 비로소 그의 진정한 알갱이에 다가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어서 그는 “그 생명의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 차오르면, 나 또한 한 떨기 꽃 되리라”(此氣滿天地/吾亦一花弁)라고 했다. 우리 사는 세상을 꽃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는 건 겉모양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속 깊이 담긴 생명의 기운이라는 외침이다.

세상살이가 죄다 그렇지 싶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의 본질을 알아낼 수는 없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행적만으로 사람을 뛰어세워서는 안 된다. 그가 살아온 삶의 연륜과 철학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나랏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의 행적이 입길에 회자된다. 부디 그들의 겉데기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철학과 진정성을 짚어 내는 지혜가 널리 발휘되기 바란다. <나무 칼럼니스트>

社說

기대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화

노사 상생형 모델인 일명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사·민·정 등의 사회적 대타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 조정이 핵심 과제이지만 자칫 합의를 찾아 못할 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최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사업비도 포함됐다. 이 예산은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다. 광주시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아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엄혹했던 시절의 판결 “평생 괴로움이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섭 의원이 “판결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목숨을 걸고 나섰던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80년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계엄군의 가혹 진압을 알린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 징형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1980년 무렵 군검찰관으로 주검을 검시했고, 군판사로서 민주화운동 재판을 했는데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경험은 평생 괴로움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이 열린 한 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는 판사 생활 동안 큰 기동이자 버팀목이 돼 주었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1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안 말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피하고 싶었다”며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항쟁에 참여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재판을 맡게 됐다.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김 후보자의 이번 사과는 그가 그동안 보여 온 공권력 견제,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대한 의지를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인준되면 앞으로 헌법 수호의 버팀목이 돼 주길 바란다.

無 等 鼓

1908년 캐나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가 탄생시키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려진 ‘빨강머리 앤’은 인기 캐릭터다. 고아이지만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초강종 마인드 ‘주근깨 소녀’ 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래엔 힘을 때마다 언제나 위안이 됐다는 ‘앤’을 소재로 소설가 백영옥이 펴낸 에세이 ‘빨강머리 앤이 전하는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양시에서 이 책을 ‘올해의 책’으로 정해 함께 읽는 모양이다.

잠시 잊고 있던 ‘앤 셸리’가 다시 마음에 들어온 건 최근 컬러링북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얼마 전 선물받았던 ‘빨강머리 앤’ 컬러링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릴 적 색칠 공부에 대한 기억 하나쯤 갖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서 컬러링북이 인기를 끈 건, 우리나라를 포함해 40개국에서 1500만 부 이상 판매된 조해너 배스포드의 ‘비밀의 정원’이 시발점이었다. 장미, 연꽃, 용도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컬러링북이 출간되는 가운데 취재 중 만난 ‘광주 컬러링북’은 색다

른 느낌에서 반가웠다. ‘다정(情)다감(感)-광주컬러링여행’은 기존 컬러링북처럼 힐링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광주의 매력을 찾아 주는 또 하나의 역할도 한다. 책에는 무등산 사계와 광주 호수생태원, 국립 5·18민주묘지, 오웬기념각 등 가볼 만한 곳과 무등산 보리밭, 송정떡갈비, 꽃게장 백반 등 군집 당기는 음식까지 모두 27개 그림이 실렸다.

여기에 미디어아트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이이남 작가 등의 작품을 ‘완성하는’ 색다른 즐거움도 있다. 색연필이 지나 갈 때마다 점점 제모습을 갖추는 작품을 보고 싶노라면 마치 화가가 된 듯하다. 책에 샘플로 실린 완성작은 광주를 다시 보게 한다. 하얀 공간을 색연필로 채워 가는 ‘아날로그 감성’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심을 전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랜만에 색연필을 쥐고서 광주의 이야기에 온기를 불어넣어 봐야겠다. 더불어 사랑스러운 앤과 단짝 다이아나 그리고 말썽쟁이 길버트에게도.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컬러링북



이 정 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최근 마을공동체, 마을학교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려는 노력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아이를 함께 기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기를 수 있을까?

아프리카 가봉의 수도 리브레빌의 해변가, 새벽 일찍 동네 사람들이 나무배를 끌고 바다로 나간다. 넓은 바다에 반원을 그리며 그물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노동요 장단에 맞추어 내린 그물을 끌어당긴다. 한나절 가까운 사투 끝에 드디어 그물이 백사장 위로 올라오고, 송어를 비롯한 각종 이름 모를 생선들이 그물 가득 펄떡이며 잡혀온다. 같이 일한 사람들이 수

아이는 마을 사람이 함께 기른다

확물을 나누어 갖는 시간, 공평하게 저울에 달아서 분배를 한다. 생선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임가엔 만족을 머금고 집으로 향한다. 하루 일과가 각자 맡은 임무를 힘입으로 시작해서 합당한 나눔을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최근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내가 본 아프리카 마을공동체 활동의 한 장면이다.

한정적 재화를 누가 차지하는가라는 본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특히 좋은 것이 극소수일 경우에는 반비례하여 경쟁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아프리카의 마을공동체는 소위 ‘우분투’ 정신의 실천이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혹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우분투는 많은 부분 삶이 연장되고 분화된, 그래서 경쟁이 심화된 오늘날에도 인류공동체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어디 경제활동에만 국한될 것인가? 교육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교육기관이 독립적으로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기보다는 상호 소통하면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실제로 사회가 분화되기 이전에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담당했었다. 사회가 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교육을 전담할 기구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단위학교와 관리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교육을 나누어 맡다 보니 과거와 달리 아이를 함께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맡은 부분만 독립적으로 담당한 나머지 ‘따로국밥’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분업화 전문화가 만들어 낸 부산물이기도 하고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설정한 경계가 너무 높아져 소통이 어렵고 유대망을 구축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고 공교육의 비정상화 그리고 교육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공교육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사회교육기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교육기관과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 역시 높은 벽을 두르고 협치를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들이 중복적으로 난립을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학교 내 돌봄교실의 경우 지역사회 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학교의 경우 교육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소통과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매년 15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직

업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교육기관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개개인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에 있는 모든 유관교육기관들이 한가운데 아이를 두고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종 사회문제는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사회적 유대망의 약화에서 비롯되었으며, 학교의 효율성 저하는 이러한 맥락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제는 가정과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사회 유관기관이 얼마만큼 각자의 벽을 허물고 협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중복난립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각 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교육을 위하여 공동으로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는 마을 사람이 함께 기른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기 고



강 행 옥
인재육성아카데미 부이사장

지역 인재를 키웁니다

생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직업교육을 시키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청년취업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CEO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올바른 품성(Character), 현장업무능력(Competence), 사명감(Commitment)을 갖춘 3C형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과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2009년 6월 18일 인재육성 아카데미 1기를 모집하여 80% 가까운 경이로운 취업실적을 기록한 이래, 지금까지 1200명 가까운 수료생들을 배출하면서 지역에 청년취업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인재육성아카데미의 본거지로 쓰는 청우당 2층 건물은 고영하 회장이 무상으로 빌려 줬고, 현재 청년내일센터로 쓰이는 건물도 강용선 회장이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줘 지역의 대학생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

특히 2011년 3월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인건비 등이 지원되기까지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하느라 실무자들도 거의 자원봉사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일했던 기억이 있다.

3년 전쯤 인재육성아카데미를 수료한 동행 회원들과 이사, 위원, 직원들이 함께 북경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 페스코(FESCO)를 방문했다. 페스코는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어 페스코에 오면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 자격증, 원하는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여, 사람을 구하는 전국의 회사나 사업체 등에 실시간으로 연결해 준다. 상호 간에 일자리 매스매치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도 실려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취업을 돕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매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사회 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